

지리교육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주제 추출*

조성욱**

Extracting Core Themes for Understanding Southeast Asia Region in Geography Education*

Sungwook Cho**

요약: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세계지역 학습 방법으로 계통적 주제가 아닌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서 추출된 핵심주제 중심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례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주제로 3개 영역(현재 상태의 이해, 주제별 탐구, 우리나라와의 관계), 7개 핵심 주제를 추출하였다. 먼저 지역의 현재 상태 이해 영역에서는, 동남아시아 자연 조건의 특징, 동남아시아 11개 국가별 특성 등 2개 주제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주제별 탐구 영역에서는, 국가형성과정의 역사적 측면,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지만 혼종 문화를 보이면서 공존하는 문화의 용광로 지역이라는 점,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 인도, 이슬람 세력 그리고 이후 유럽 세력의 진출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라는 점,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 서양세력의 관심 대상이었던 말루쿠 군도, 현재는 중국의 대체 보완 지역으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4가지 주제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야 및 불교 전래, 최근에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증가 및 관광객 등 교류 증가, 냉전 시대에 같은 입장이었다는 점,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침투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등의 측면에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핵심 주제로 추출하였다.

주요어: 세계지역 학습, 핵심주제, 동남아시아, 3개 영역, 7개 핵심주제

Abstract: In this study, as an efficient World Geography learning method, a core themes extracted based on the region rather than a systematic topic was proposed. This metho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be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enabling comparative learning with other regions. As an example, three area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subject-specific inquiry, and relationship with Korea) and seven core themes extraction methods are presented understand Southeast Asia. First area, as two core themes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n natural conditions,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11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second area of subject-specific inqui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countries were extracted, a melting pot area of culture in that various cultures have been introduced by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 terms of geopolitics, the entry of Chinese, Indian, Islamic, European forces,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in conflict region. In terms of economy, the Maluku Islands were the focus of Western forces and are now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complementary

*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region of China. Third area, in terms of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Korea, it is historically related to Gaya and Buddhism, it forms a homogeneity by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ourists and the need to jointly respond to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enetration.

Key words: World Geography Learning, Core Themes, Southeast Asia Region, 3 Areas, 7 Core Themes

I. 서론

지리교육에서 세계지역 학습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전통적 대륙중심 방법의 지역을 달리한 반복 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제와 개념 중심의 계통적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계통적 방법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지역 인식의 형성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인식 형성에 유리한 지역적 방법과 학습 주제별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계통적 방법의 장점을 살려 학교급별에 따라서 혼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념(concept)은 이론, 일반화, 법칙과 연결되는 지리학의 계통 영역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해당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은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의 종합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주제(theme)는 지역적 방법의 '지역-주제 방법'과 같이 지역 특성에서 주제가 추출될 수도 있고, 계통적 방법의 '주제-화제 방법'과 같이 지리학의 개념과 원리에 바탕을 둔 주제가 추출될 수도 있다. '지역-주제 방법'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지식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의 범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제-화제 방법'은 학습자들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적 방법에서 추출되는 주제는 해당 지역의 종합적 특성을 바탕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즉,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주제(core themes)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방법은 지역 반복이나 주제 반복의 단점을 극복하고, 유사한 주제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역과 상

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학습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지역을 파악할 수 없고, 교사의 정교한 방향설정과 구조화는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역에 대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리교사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먼저 추출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역 학습에서 지리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에 기반한 지역의 핵심주제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지역으로 선정된 동남아시아(South-Eastern Asia) 지역명은 1839년 미국인 하워드 맬컴(Howard Malcom)의 여행기에서 처음 등장했고, 1943년 2차 대전 중 연합군이 스리랑카에 동남아시아 사령부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소병국, 2021, 19).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11개국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동남아학회(1991)와 한국동남아연구소(2004), 대학에서는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하나의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내적 다양성이 커서, 다른 국가까지를 포괄하는 비교연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안청시·전제성, 2019, 6).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적 필요성 때문에 정치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연구자들의 관심지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순이다. 대표적인 학회지인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1992~2015)의 주제를 살펴보면 정치학 주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경제학 그리고 최근에는 인류학 주제의 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 순이다(안청시·전제성, 2019, 15).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연구는 먼저 세계

지리 과목에서 동남아 지역의 정형성을 재조명한 연구(김학희, 2005), TV 여행 프로그램의 세계지리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김현주, 2018), 중학교 교과서에서 동남아 현대 현상과 초등 사회과의 서술내용 분석(김이재, 2021a, 2021b)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 연구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로 인한 필리핀 동부 라푸라푸 섬의 변화 과정을 정치생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엄은희, 2008)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동남아시아 내용의 비중(김이재, 2021a)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교수요목기에서 1차 교육과정 시기에 가장 높았으며(세계지리 영역에서 평균 약 5%), 2차~5차 교육과정에서는 1~3%로 낮아졌다가, 6차 교육과정에서 약간 높아졌으나(약 4.1%), 다시 7차 교육과정(약 2.7%) 이후 낮아졌다(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1%).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30여년에 불과하며, 연구 분야 또한 정치학 등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지리교육에서의 접근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비중 변화는 우리의 필요나 지식의 양보다는 외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생들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올바른 지리적 관점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인식하고, 깊이 있는 주제 학습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부분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지역 이해를 위한 지역 기반 핵심주제 추출의 의미

1. 지리교육에서 세계지역 접근방법

서태열(2005)은 지리교육과정의 내용구성 방법을 4가

지로 정리하고 있다(표 1). 이 중 지역적 방법과 계통적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적 방법에 의해서 세계지역 학습을 구성한다면 우선 다양한 방법(자연지역, 정치지역, 경제지역, 문화지역 등)에 의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구분된 지역을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적 방법은 구분된 지역 간의 차이점과 지역 내의 유사점에 중심이 주어지며, 점이 지역의 존재로 지역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전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많아져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다는 점, 똑같은 학습구조를 지역을 달리해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단조로움, 다른 지역과의 연결적인 측면 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점, 동적인 측면 보다는 정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이 중심이 되며, 학습자가 전 세계를 일별하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지역 구분에 의한 나열적인 측면과 단조로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지역-주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대륙중심 방법에서 이루어졌던 지역의 모든 항목을 학습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통지리의 등장과 함께 계통적 방법에 의한 지리교육과정 구성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제-화제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주제(theme)는 지리학의 계통 영역에서 추출되며, 화제(topic)는 소항목으로 선정된다. 지역적 방법이 대분류의 기준이 지역인데 비하여, 주제-화제 방법은 계통지리의 주제가 대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제별로 조각 조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으로서 세계 전체를 일별하거나 지역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1. 지리교육과정의 내용구성 방법

대구분	세 분
지역적 방법	1) 전통적 대륙중심 방법, 2) 지역-주제 방법
계통적 방법	1) 주제-화제 방법, 2) 개념중심 방법, 3) 원리중심 방법
패러다임 방법	1) 생태계, 2) Pattison의 지리학의 4개 전통 등
동심원적 방법	1) 지평확대방법(환경 스케일 확대), 2) 동심원적 방법(지역 스케일 확대)

출처: 서태열, 2005, 351.

세계지리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세계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별할 기회가 주어져 지역에 대한 인식 형성이 가능해야 하고, 이 후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주제별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대륙별 방법은 수평적이고 나열적이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암기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계통적 방법은 지리학에 기반한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역 접근의 방법론 획득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세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 지역적 방법과 계통적 방법의 상호 보완과 융합적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들이 학교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학교과정에서의 지리 학습이 유용했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지리 학습에서 지역구분 방법의 대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수 내용요소를 선별하는 방법(전중환, 2015)과 학습 단위 지역의 규모를 대륙규모가 아닌 국가 단위인 거점국가 중심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105).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우리나라 학습자의 인지 정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륙단위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중남미나 오세아니아 지역과 같이 구분된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큰 경우 거점국가를 먼저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지역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다(조성욱, 2005).

그리고 기존에 지리교육에서 활용되는 지역 접근 방법을 지역중심 방법, 주제중심 방법, 쟁점중심 방법으로 구분하고, 지역중심과 주제중심 방법을 지리학 활용 방법(학문적 방법)으로, 쟁점중심 방법은 쟁점이 중심이 되고 지역을 수단으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조성욱, 2022, 35).

또한 특정 지역을 학습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다수의 국가가 위치하지만 중남미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같이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의 공통점이 큰 경우 먼저 공통

적인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 등 지역 전체적인 기본 틀을 우선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과 지역문제를 이해하는 ‘기본 틀 우선 이해방법’과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역 문제를 학습의 계기로 삼아 지역 이해로 진입하는 ‘이슈 중심 심화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학문적인 기본 틀을 우선시 하는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우선시 하는가의 차이로 볼 수 있다(표 2). 학습자의 흥미를 중요시한다면 ‘지역이슈 중심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고, 학습자에게 세계지리 이해의 기본 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을 우선한다면 ‘기본 틀 우선 접근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지역문제와 현상은 100%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지만, 학습자들에게 그 문제의 발생과 현상의 이해에서 지리적인 측면을 인식시켜주어 지리적 관점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세계지역에 대한 지역 인식을 형성하고, 해당 지역에 기반한 지역의 특징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기반한 핵심주제 추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대륙단위 구분법이면서, 학문적 방법에 해당하며, 기본 틀 우선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세분하고, 그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를 학습할 경우, 과거 지역적 방법에서와 같이 인구, 면적, 지형, 기후 등을 나열적으로 학습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주제를 지니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학습을 통하여, 특정 지역의 학습 과정 중에 세계 지역과의 연계 학습이 가능하다.

2.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주제 추출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많은 정보(정보의 홍수)에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

표 2. 다양한 세계지역 접근 방법

분류 기준	세 분
접근 규모	1) 대륙단위 구분법, 2) 거점국가 중심 방법
접근 방법	1) 학문적 방법(지역중심, 주제중심), 2) 교육적 방법(쟁점중심)
우선 방법	1) 기본 틀 우선 방법, 2) 지역 이슈 중심 방법

라,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역 이해를 위한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 주제의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 즉, 지역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맡겨두는 방법(Bruner의 발견학습 방법)보다는, 교사에 의한 방향 설정에 의미를 두는 방법(Ausubel의 유의미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교사에 의해서 해당 지역 이해를 위한 적절한 주제가 선정되면 학습자는 혼란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바로 해당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지 교과서와 백과사전, 시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선정이 가능하지만, 주제 선정은 교사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의 총합이고 지리 교사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핵심주제 추출에서 먼저 고려할 사항은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지역 범위와 위치적 특성, 개괄적인 기후적 특성과 지형적 특성 등의 자연 조건의 이해,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분포와 특성 등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의 이해는 학습자에게는 위치적 특성과 국가별 분포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인식을 형성하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은 주제별 깊이 있는 학습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방향과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등학교 지리교육에서 지역 인식 형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리적 문제 인식과 문제의 지리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지역에 기반한 핵심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다. 핵심 주제는 그 지역의 위치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주제일 수도 있고, 기후 또는 지형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주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 특성에서 유래한 주제일 수도 있다. 핵심 주제는 해당 지역만의 특성 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특성과 유사 또는 대척적인 주제일 수도 있다. 여러 지역

에서 선정된 주제는 해당 지역의 학습 과정에서 수시로 소환되면서 비교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문명의 교차로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기후와 지형 등 자연적 조건에서는 아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상호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공통적인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한정하는 정적인 학습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찾고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위치적 측면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역사적 측면, 정치 및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대상 지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의 자신의 지식과 해당 지역의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한 나의 지식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학교생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의 다양한 지식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에 기반한 핵심개념 추출과 학습은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깊이 있는 주제학습으로 이어져서 지역이 실종되는 계통적 방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대륙별 학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표 3).

III.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 주제의 추출과 적용

1.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7개 핵심 주제 선정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 주제를 선정하는

표 3.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주제 추출의 의미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 목표
3단계	우리나라 및 나의 학습 내용 연결	지식의 연계, 지역에 대한 관점 형성
2단계	주제별 심층 학습	깊이 있는 지역 특성 이해
1단계	현재 상태의 이해	지역 인식 형성, 지리적 문제 인식

과정은, 먼저 학습자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남아시아의 위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역 범위, 국가의 분포와 위치, 수도의 위치, 다양한 지역구분 방법 등으로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이 후에는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의 특징을 파악하여 동남아시아의 자연조건을 이해하고, 각 국가들의 특징과 비교를 통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지역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지역 인식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상태의 이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위치와 지형 및 기후(자연조건), 국가별 특성과 차이(인문 조건) 등 2개 주제를 선정한다.

다음 단계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주제별 이해 단계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으로 먼저 현재 존재하는 국가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측면,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중국 문명과 인도 문명 그리고 이슬람 및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종교와 문화의 특성, 역시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동양과 서양,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정치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 지정

학적 측면, 그리고 위치와 역사의 영향을 받은 경제적 측면 등을 주제로 선정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동남아시아 지역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로는 국가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측면, 종교와 문화의 융합이라는 문화적 측면,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 측면, 위치 및 역사의 영향을 받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특징 등 4개 주제를 선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으며, 기후와 지형 등 자연 조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고대부터 바닷길에 의한 교류, 냉전 상황에서의 파병,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완관계, 사회적 측면에서의 최근 교류 증가 등에서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해서 3가지 영역에서 총 7개의 핵심 주제를 추출해 본다(그림 1, 표 4).

2. 지역 인식을 위한 현재 상태 이해

계통적 방법에 의한 접근 방법의 문제점인 지역을 인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적 방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자연조건과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구성하는 단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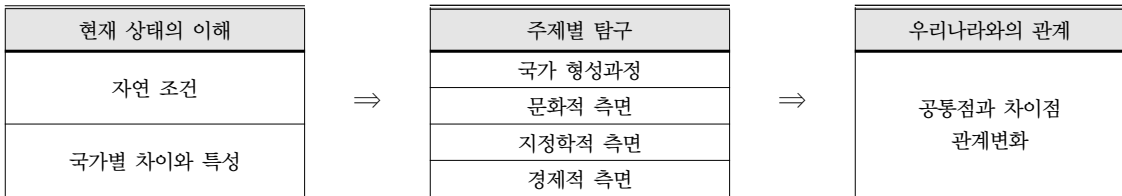


그림 1.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핵심주제 추출

표 4. 동남아시아 지역 이해를 위한 지리적 핵심주제 선정

분류	세부 주제	단계 및 영역
1. 자연 조건	위치, 기후, 지형, 토양(자연적 기본 조건)	현재 상태의 이해 (지역 인식 형성)
2. 국가별 차이와 특성	인구, 면적(국가별 특성)	
3. 국가형성과정의 특징	국가별 형성 역사(역사적 측면)	주제별 이해 (지역 특성 이해)
4. 문화의 교차로	종교와 문화의 융합(문화적 측면)	
5. 지정학적 측면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 측면(정치적 측면)	
6. 경제적 특징	경제의 특징과 상황(경제적 측면)	
7.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상호 관계(공통점, 차이점)	관계 이해(지역 관점 형성)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한 분류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지역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1) 위치, 기후, 지형적 특성의 이해

지도에서 학습자가 동남아시아 지역과 범위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방법은 국가 단위인데, 먼저 동남아시아 11개국과 수도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위치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11개국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범위를 인식할 수 있다(그림 2).

국가 수준에서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반도부(대륙부)와 도서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도와 해양에 걸쳐있는 말레이시아의 위치를 특

이한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륙국과 도서국 그리고 바다에 접한 국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 수도의 위치적 특성을 확인하고, 뉴기니 섬과 티모르 섬 그리고 보르네오 섬에서의 국경선 설정 특징,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국가 등 다양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인식할 수 있다(그림 3).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위도상의 위치이다. 먼저 경도를 통하여 극동과 극서에 위치하는 국가와 각국의 표준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위도를 통해서 기후조건과 토양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후조건을 통하여 작물 재배와 농업을 연계 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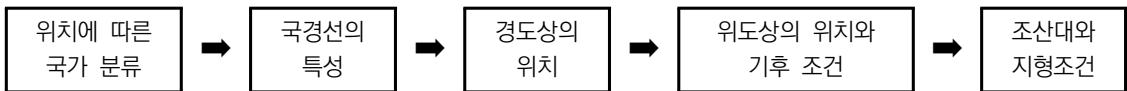


그림 2. 자연조건을 활용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식 형성



그림 3. 동남아시아 11개국의 위치

대와 같은 지형조건을 통하여 화산과 지진의 발생 가능성, 산맥의 형성과 하천 형성의 특징, 국제하천 및 축적지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2) 국가별 차이와 특성 이해

위치 특성 및 자연조건과 함께 국가별 차이와 특성은 다양한 지역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구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주제별로 심도 있는 학습 이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그림 4).

국가별 특성에서 비교하기 가장 쉬운 특성은 면적과 인구규모의 차이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인도네시아(1,904,569 km²)이고, 가장 작은 국가는 싱가포르(697 km²)이다. 그리고 인구 규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브루나이(43만)이다. 동남아시아 11개국의 면적은 1 : 2,732배, 인구수는 1 : 627배의 차이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1500년대 이후 타이틀 제

외하고는 프랑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영국(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 포르투갈(동티모르), 스페인과 미국(필리핀) 등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표 5).

식민 지배 후에 베트남(1945년 독립, 1975년 통일), 필리핀(1946), 미얀마(1948), 인도네시아(1949)가 비교적 빨리 독립했으며, 캄보디아(1954), 라오스(1957), 말레이시아(1963), 싱가포르(1965), 브루나이(1983), 동티모르(2002)의 순으로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와 수도의 위치, 기후, 지형, 국가별 면적과 인구, 식민지 지배국, 독립시기, 등을 국가별 분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주제별 학습 이전에 학습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인식은 깊이 있는 주제별 학습 과정에서도 항상 지역을 의식하는 기초가 되고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가별 차이와 특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11개국을 저점국가 중심 방법으로 분류해보면, 인구나 면적에서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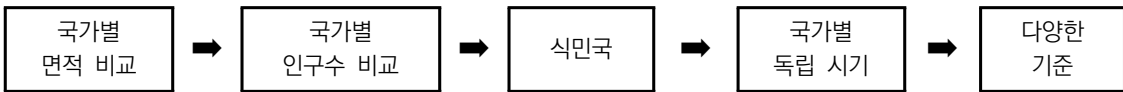


그림 4. 국가별 차이와 특성을 활용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식 형성

표 5. 동남아시아 11개국의 국가별 특성

국가별	현재 국가형성	아세안 가입연도	식민국	2020년 인구(천명)*	면적 (km ²)
베트남	1975	1995	프랑스(1858~1954)	97,339	331,210
캄보디아	1954	1999	프랑스(1863~1954)	16,719	181,035
라오스	1957	1997	프랑스(1888~1957)	7,276	236,800
미얀마	1948	1997	영국(1886~1948)	54,410	676,578
타이	1431	1967	아유타야(1431~)	69,800	513,120
인도네시아	1949	1967	네덜란드(1602~1949)	273,524	1,904,569
말레이시아	1963	1967	영국(1786~1957)	32,366	329,847
싱가포르	1965	1967	영국(1819~1957)	5,850	697
브루나이	1983	1984	영국(1888~1983)	437	5,765
필리핀	1946	1967	스페인(1521~1898) 미국(1898~1946)	109,581	300,000
동티모르	2002	-	포르투갈(1515~1976) 인도네시아(1976~2002)	1,318	14,874
합 계				668,620	4,494,495

* UN, 2019,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2020년 인구 추계).

(1차 거점국가), 해양국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말레이시아와 계속적으로 독립을 유지했던 타이, 최근 역사적 변동과정이 격렬했던 베트남이 2차 거점국이 될 수 있다(표 6). 그리고 섬으로만 이루어진 필리핀, 위치적 특성으로 인도와 중국의 중간 지점인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된 싱가포르 등이 3차 거점국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면적과 인구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브루나이를 4차 거점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탐구를 통한 지역의 심층적 이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제는 먼저 현재 11개국의 형성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역사적 측면,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여 형성한 독특한 문화적 측면, 위치적 특성에 의하여 다양한 세력들의 대결장이 된 지정학적 측면,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

반영된 경제적인 측면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단계의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1단계에서 형성된 지역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 11개국의 형성과정

동남아시아 11개국의 국가형성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중국인과 인도인 그리고 유럽인의 이주 영향, 국가 정체성의 형성 시기, 독립국가가 된 시기, 각국의 정치체제 등이다. 이러한 국가형성과정에 대한 탐구는 이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 및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1단계에서 이루어진 국가별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림 5).

동남아시아에는 일찍부터 중국인의 이주가 있었지만, 1293년 원나라 쿠빌라이의 인도네시아 원정과 1405년~

표 6. 동남아시아의 거점국가 선정

거점순위	1차 거점국	2차 거점국	3차 거점국	4차 거점국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동티모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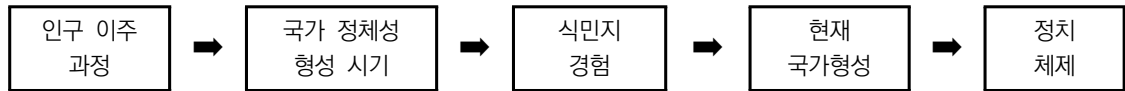


그림 5. 11개국의 형성과정을 통한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측면 이해

표 7. 반도부(대륙부) 5개국의 국가형성과정

국가명	주요 사항
1. 베트남 (越南, Viet 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180년경 송코이강(홍강) 유역에서 남비엣 성립 ○ 1780년 북부의 려 왕조 남북통일(메콩강 유역까지, 베트남의 원형) ○ 1883년 프랑스군의 점령 ○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 통일(사이공 함락)
2. 타이 (泰國, Thai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1년 아유타야 건국(1351~1676) ○ 1431년 앙코르 정복(태국의 원형 형성) ○ 1932년 입헌 군주제
3. 캄보디아 (Cambo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2년 앙코르 건국(9~14 세기) ○ 1780년 옥에오(Oc Eo) 지역 베트남 편입(메콩강 하류) ○ 1954년 제네바 회의 이후 독립
4. 라오스 (La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3년 란쌍 왕국 건국(수도 루앙프라방) ○ 1765년 3개 왕국으로 분열 ○ 1957년 독립
5. 미얀마 (Myan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7년 버강 건국(첫 통일 왕국) ○ 1759년 쯔바웅 왕조 통일(정체성 형성 시작) ○ 1948년 독립 선포

자료: 소병국, 2021.

표 8. 도서부 6개국의 국가 형성 과정

국가명	주요 사항
1. 말레이시아 (Malay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86년 영국 말레이 반도 진출 ○ 1824년 영국령 말레이와 네덜란드령 동인도 구분 ○ 1909년 영국령 말라야 형성 ○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 탄생(브루나이 제외, 싱가포르 탈퇴)
2. 싱가포르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9년 프마췌에 상관 개설(싱가포르 시작) ○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말라카 해협 이용 증가 ○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3.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8년 영국 보호령 ○ 1959년 자치권 획득 ○ 1983년 독립 선언
4. 필리핀 (Philipp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1년 마젤란 세부섬 도착 ○ 1810~20년대 멕시코(아카폴로) ~ 필리핀(마닐라) 갈레온 무역 ○ 1898년 미국에게 양도 ○ 1946년 독립
5. 인도네시아 (Indone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3년 몽골 침입, 마자빠히트 왕국 건립(1294~1527, 인도네시아 원형) ○ 1515년 포르투갈 진출 ○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진출 ○ 1949년 독립(1963년 뉴기니 서부 통합 - 이리안자야 제외)
6. 동티모르 (Timor-le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5년 포르투갈 진출 ○ 1859년 포르투갈(딜라)과 네덜란드(꾸뽕) 경계 협상 ○ 1976년 인도네시아 편입 ○ 2002년 독립

자료: 소병국, 2021.

1433년(7차례) 명나라 평화의 원정이 특징적이다. 서양 세력은 1515년 포르투갈이 처음 등장했고, 1521년 스페인(마젤란), 1602년 네덜란드, 1786년 영국, 1858년 프랑스, 1898년 미국의 진출이 있었다(표 7, 8). 이에 비하여 인도와 이슬람 세력에 의한 무력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타이, 말레이시아), 군주제(브루나이), 대통령제(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싱가포르), 사회주의 국가체제(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

2) 종교와 문화의 융광로

동남아시아 문화의 특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과거와 현재 동서양을 잇는 항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현재 중국, 인도, 이슬람, 유럽의 영향은 어떻게 남아 있는가,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문화를 어떤 형태로 융합했는가, 인종과 민족의 분포와 이동 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종, 종교, 문화적 측면의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그림 6).

기원전·후 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해로는 주로 연안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길을 통하여 동방의 비단, 칠기, 도자기, 향료, 차 등이 서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길은 도자기길 또는 향료길이라고도 불린다(정수일, 2001, 652). 또한 순다 해협이 유럽에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나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으나,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에는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반도 사이의 말라카 해협¹⁾이 더 중요한 노선이 되었다.



그림 6. 종교와 문화의 융광로 특성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이해

동남아시아에 유입된 외부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의 한자 및 유교 문화, 인도의 영향을 받은 타이(국교)의 불교와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힌두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유럽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과 동티모르의 기독교 등이다. 동남아시아에는 세계의 주요 종교가 모두 존재하지만, 순전한 형태가 아닌 혼합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Heidhues, 2020, 95). 그리고 인도에서 힌두교가 들어왔지만 카스트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동남아시아는 다인종사회인데, 한 국가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기도 하고, 동일한 종족이 국경을 초월하여 거주하기도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중국인인 화교의 비중이 높은데, 싱가포르(74%), 말레이시아(25%), 브루나이(28%) 등이 높은 편이다(2010년 기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혼합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음식, 인도 음식, 말레이 음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바바노냐 음식(Baba-nyonya food), 중국인의 자손인 페라나칸(peranakan)의 복식인 커버야(kebaya)는 서구 요소와 아랍계 그리고 중국과 말레이 계통이 섞인 혼종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강희정, 2019, 47).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용광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지역 내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화교 및 토착민과의 갈등(말레이시아), 뉴기니 섬 서부의 이리안자야의 분리 독립 운동과 수마트라 섬의 아체 분리 운동(인도네시아), 이슬람을 믿는 민다나오 섬 중심의 모로족 분리 독립운동(필리핀), 버마족과 소수 민족 간의 갈등(미얀마), 말레이계 무슬림과의 갈등(타이) 등이 있다(전종한 외, 2015, 274).

3) 세계 주요 세력의 교차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이슬람, 서양, 일본 세력이 언제 진출했으며, 냉전시대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정학적 측면의 학습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위치적 특성은 문화와 종교 및 인종적인 교차점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교차점이면서 전선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정학적 측면의 이해를 통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그림 7).

동남아시아 지역은 위치적 특성 때문에 중국, 인도, 이슬람 그리고 유럽 세력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진출은 원의 인도네시아 침입(1293)과 정화의 해외원정(1405~1433)이 있었으며, 인도와 이슬람 세력은 군사적 침입은 없었고 문화 전파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유럽 세력은 경제와 군사적 침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일본군의 침입(1942)과 경제적 진출이 있었고(서승원, 2018, 230),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시대 때는 두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최근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Kaplan, 2021, 32)과 일대일로 정책(이강국, 2018, 55)으로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연결하는 목걸이 모양의 군사 및 상업시설 연결망인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2017년,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의 협력 체제)이 대결하고 있는 지역이다.

4) 동남아시아 경제의 특징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말루쿠 제도의 향료무역, 농업 형태의 특징, 풍부한 지하 자원, 공업발달의 특징, 역내 및 역외 무역의 특징, 경제에서 화교의 비중과 역할,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11개국 중 1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역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그림 8).

향료제도(Spice Islands)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Maluku)²⁾는 3개의 제도(Islands)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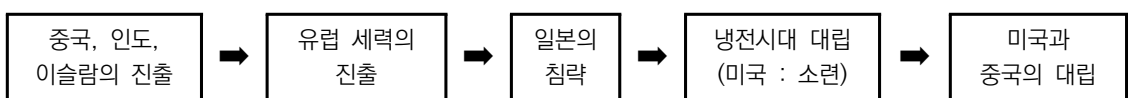


그림 7.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동남아시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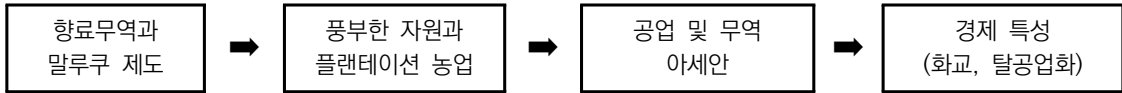


그림 8.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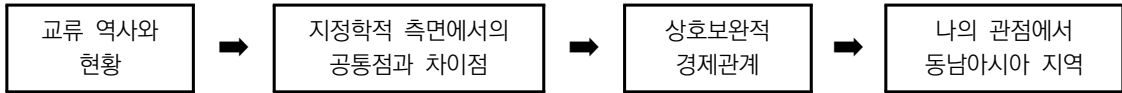


그림 9.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이해

(Acemoglu *et al.*, 2012, 355). 향신료인 정향, 메이스(mace), 육두구 등의 세계 유일 산지로서, 생산물은 말루쿠(Maluku) → 플라카(Melaka) 해협 →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었으며, 유럽 세력의 동남아시아 진출의 동기를 제공했다.

동남아시아의 상업용 농작물은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플랜테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석, 석유와 천연가스, 나왕, 티크, 흑단 등의 목재(보르네오 섬) 등은 주요 수출품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입 물품이 유사하여 역내 무역 보다는 역외 무역 비중이 높아 외부 무역환경 변화에 취약하다(전중환 외, 2015, 287).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의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다시 아세안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의 대체 보완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자원 확보가 중심이었으나, 차츰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박변순, 2019, 154).

현재 동남아시아 경제의 문제점은 미성숙단계에서의 탈공업화로 인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는 점과 정부가 시장에 압도되어 있다는 점, 높은 화교의 비중과 함께 가족소유 비율이 높고 소수가문이 지배하는 구조라는 점 등이다(박변순, 2019, 402). 화교기업인(Overseas Chinese)은 부동산업과 금융업의 진출이 높으며, 가족경영과 판시(성씨, 고향, 업종의 인연) 그리고 정경유착이 특징적이다(박변순, 2019, 268).

4.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교류의 역사 및 사회학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 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관점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학습이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등 지역에 관한 지식의 직접적 유용성을 확인시켜 주며, 우리의 지리적 관점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그림 9).

동남아시아와는 바닷길로 연결되었는데 고대 가야국과 불교도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부인이 바다를 건너온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다는 허황옥(許黃玉) 전설, 가야 수로왕의 7왕자가 7불이 되었다는 전설, 가야라는 이름(인도 부다가야), 인도식 불교 장식과 인도나 수마트라에서 존재하는 파사식 도입, 유리 전파 등에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정수일, 2001, 524). 또한 고려시대(1127년)에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인 이양훈의 후손인 정선 이씨(旌善李氏, 강원도 정선), 1226년 베트남에서 황해도로 이주해 온 화산 이씨(花山李氏, 황해도 웅진)가 있다(성씨정보, 2022).

냉전시기 우리나라는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참전하였으나(1964.9~1973.3), 1973년 파리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모두 철수했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재중 동포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중 약 50%가 동남아시아 여성이며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의 증가, 상호 긍정적 인식 형성, 관광객 등 교류증가, 냉전 시대의 공통 경험,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침투에 대한 공동대응 등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동질감과 함께 상호 공통적인 관심사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지정학적 사고는 우리나라 외교를 동북아시아로 축소시키고, 한국의 약소국 위치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국제관계에서 구한말 상황과 비교하고,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 등 4강 중심의 강대국 사대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이재현, 2019, 131).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주변 4강에만 매몰되지 않고 강대국의 압력에 공동대처하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는 냉전시기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최전선 지역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은 남북 분단을 경험한 지역이다. 또한 일대일로와 도련선 설정 등과 같은 중국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 미국과 중국 세력의 충돌 지역이라는 측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 2차 세계 대전 때에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형성 과정의 차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라는 위치적 차이와 기후적 차이, 경제구조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생산인구, 위치적 특성, 중국에 비해 개방적인 경제구조, 우리나라와 산업의 특성 차이로 상생협력의 경제적 파트너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2009년과 2014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스마트폰의 40%를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수출국이 되었고, 베트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호 교역 다각화와 시장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공업화 현상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한국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은 수출이 2010년 11.4%에서 2020년 17.4%로 증가했으며, 수입은 2010년 10.3%에서 2020년 11.7%로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2022).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 중에서 수출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포함되고, 수입에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포함되고 있다(표 9).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세계지역 학습 방법으로 계통적 주제가 아닌 해당 지역에 기반한 지역의 특징적인 주제 즉, 지역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역에 기반해서 추출된 핵심주제 중심 학습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유사한 주제가 추출되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주제로 3개 영역(현재 상태의 이해, 주제별 탐구,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걸친 7개의 핵심 주제 추출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현재 상태 이해는 학습자에게 학습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주제로는, 첫째, 국가단위의 위치적 특성과 기후 조건 및 지형 조건을 통한 지역 인식의 형성이다. 둘째,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주제별 탐구를 위한 심층 주제는 현재 상태의 이해를 통해서 학습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인식이 형성된 이후에 주제별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심층 주제로는, 첫째, 현재 11개국의 국가형성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측면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중국, 인도, 이슬람,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종교, 음식, 의복 등의 문화적 측면에서 혼종 문화의 특성을

표 9. 한국의 10대 무역국(2020년 기준)

수출국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타이완	인도	싱가포르	독일	말레이시아
비중(%)	25.9	14.5	9.5	6.0	4.9	3.2	2.3	1.9	1.9	1.8
수입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호주	타이완	사우디	러시아	말레이시아
비중(%)	23.3	12.3	9.8	4.4	4.4	4.0	3.8	3.4	2.3	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통관자료).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동남아시아는 중국, 인도, 이슬람 세력의 진출과 유럽 세력 그리고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시대의 대립,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 등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서양세력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말루쿠 군도와 최근 중국의 대체 보완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를 가능하도록 했다.

세 번째,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역사적 측면에서의 관계,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보완 측면에서 협력의 대상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러한 학습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형성시켜주며, 지역에 관한 지식의 직접적 유용성을 확인시켜 주고, 지리적 관점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등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학습이 매크로(macro)한 측면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뒷받침이 없어 추상적 이해에 머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깊이는 있지만 마이크로(micro)한 측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적 접근과 계통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올바른 지역 이해가 가능하고, 지역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지역 인식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제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등 나선형 보다는 학교급별로 교육 목표를 달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주

- 1) 므라카 해협: 말레이 반도(말레이시아)와 수마트라 섬(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하는 므라카 해협은 말레이어로는 Melaka (믈라카 또는 멀라까), 영어로는 Malacca(말라카)로 발음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말레이어인 ‘믈라카’로 통일한다(Heidues, 2020, 46).
- 2) 말루쿠 제도: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과 뉴기니 섬 사이에 위치하는 말루쿠 제도는 인도네시아어로는 Maluku(말루쿠),

영어로는 Moluccas(몰루카)로 발음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어인 ‘말루쿠’로 통일한다. 말루쿠 제도에서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향(clove), 육두구(nutmeg), 메이스(mace) 같은 향료가 생산되었던 지역(일명 향료 제도)이다. 외부 세력으로는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진출했으며, 이후 네덜란드가 진출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인도네시아의 할마헤라(Halmahera) 섬 중심의 북말루쿠주와 스람(seram) 섬 중심의 말루쿠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이 지역의 중심지는 스람 섬의 암본(Ambon)이었고, 남부의 티모르 섬은 향료무역 중계지였다(Acemoglu et al, 2012, 355; Heidues, 2020, 137).

참고문헌

- 강희정 엮음,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문명의 교류, 사회평론아카데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
- 김이재, 2021a,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국가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 김이재, 2021b, “한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재현된 동남아 교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까지 서술내용 분석”, 교육논총, 41(2), 271-287.
- 김희희, 2005, 세계지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형성에 대한 재조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8, “TV여행프로그램을 통한 세계 지역 학습의 가능성 탐색: <세계테마기행>과 <꽃보다 청춘>, <배틀 트립>속 ‘라오스’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4), 79-98.
- 박변순, 2019, 아세안의 시간, 지식의날개.
- 서승원, 2018, 근현대 일본의 지정학적 상상력,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소병국, 2021, 동남아시아사, 책과함께.
- 안청시·전제성, 2019,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엄은희, 2008, 환경의 신자유주의화와 제3세계 환경의 변화-필리핀 라푸라푸 광산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강국, 2018,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BookStar.
- 이재현, 2019, “한국 외교전략 재구성을 위한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의 지정학”, 지정학적 시각과 한국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125-173.

- 전중환, 2015, “세계지리에서 권역 단위의 조직 방안과 필수 내용 요소의 탐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92-205.
- 전중환 외, 2015, 세계지리-경계에서 권역을 보다, 사회평론.
- 정수입, 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 조성욱, 2005, “거점국가 중심의 세계지리 교육내용 구성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349-362.
- 조성욱, 2022, “지리교육에서 7개 스탠 국가 학습을 통한 중앙 아시아 지역의 이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2), 33-50.
- 한국지역지리학회, 2019,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푸른길.
- Acemoglu, D and Robinson, J. A., 2012, *Why Nations Fail*(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A. 로빈슨 저, 최완규 역, 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 Heidhues, S. Mary, 2000, *Southeast Asia: A Concise History*(매리 하이두스 저, 박장식·김동엽 공역, 2020,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솔과학).
- Kaplan, R. D., 2014, *Asia's Cauldr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a Stable Pacific*(로버트D 캐플런 저, 김용민·최난경 역, 2021, 지리대전, 글항아리).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관세청 통관자료 성씨정보, <http://www.surname.info/>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국내통계(국가수출입).
- UN, 2019,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2020년 인구 추계).
- 접 수 일 : 2022. 10. 25
- 수 정 일 : 2022. 11. 29
- 게재확정일 : 2022. 11. 29
- 교신: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chossww@jbnu.ac.kr, 063-270-2769)
- Correspondence: Sungwook Cho, chossww@jbnu.ac.kr